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그 현주소

기조 · 인력양성 · 연구개발등 소개

과학기술은 다국화체제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하면서 변모하는 새로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독일통일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일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과학기술이 국가에 관한 경제발전과 한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두 가지 당면과제를 푸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교류를 실천해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볼 때 사실 과학기술분야만큼 비정치적이면서 상호교류의 당위성이 절실한 분야도 없다고 본다. 본 난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실상을 1)기조 2)인력양성 3)연구개발로 나누어서 3회에 걸쳐 연재하고 그후에 각 분야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2>인력양성

북한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공산주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이념적 기초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에 제정·공포된 사회주의 헌법 제39조에는 북한의 학교교육에 대한 목표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정 조 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한편 오늘날 북한의 학교교육과 교육학의 기본지침서가 되고 있는 1977년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들의 교육은 주로 공산주의적 세계관, 사회관, 국가관, 인간관중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곧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기에 따른 내외정세의 변동에 따라 구체적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첫째, 유물사관을 확립하고 소위 김일

성의 유일사상을 무장시킬 것.

둘째, 공산독재체제의 우월성을 믿게 하고 이 체제에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소유케 하는 것.

셋째,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어떤 부문의 일을 시켜도 한 사람 이상의 몫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소유케 하는 것.

넷째, 집단주의 정신과 무보수 노동을 기피하지 않는 근로정신을 배양케 하는 것.

다섯째,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 전략 및 전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쌓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볼 때 북한은 정치에 완전히 예측되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실천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정치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근본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교육과 기술인력양성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중요성은 교육분야에서부터 바탕을 쌓는다는 방침하에 과학기술교육의 목표를 고도의 과학이론을 습득시키고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인 원리를 생산에 직접 응용토록 하며 현대 과학기술에 민감케 하는 한편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당 과학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며,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의 1·2기출대학지도국과 과학방법지도국에서 과학교육의 방법과 기술대학의 운영방침을 세워서 북

한전체의 규모를 갖는 김책공대, 평양의 대 등에 대한 기술교육 지침을 하달하며 동시에 각 도와 직할시의 행정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는 지방의 농수산대, 의대, 공장, 농장, 어장대 등에도 그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과학자와 고급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2년제의 박사원과, 2~4년제의 연구원이 있으며 이들은 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고등교육부, 보통교육부, 보건부 등의 산하 연구소 및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5~6년제의 이공계 및 농수산계 대학이 있는데 이공계대학으로는 농업, 건설, 운수, 경공업, 기계, 화학, 수리, 동력, 광산금속, 석탄, 지질, 체신, 식료, 도시건설, 철도, 해운 등의 16개 대학으로 구분되고 농수산계 대학은 농업, 임업, 수의, 축산, 과수, 수산 등 6개 분야의 대학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서 5~6년제의 공장·농장·어장대학이 다수 설치되어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기술자의 대량양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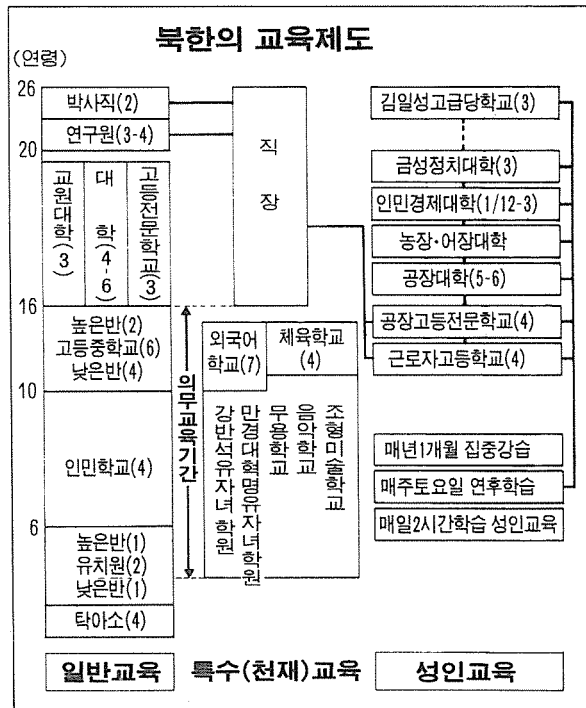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교육기관은 1989년말 통계로 270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중 약 70%가 기술계통이고 그 중의 약 반정

도가 공장·농장 및 어장대학으로 되어 있고, 학술적 이론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대학 및 과학원 산하 연구소내에 박사원과 연구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제도와 인력양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한 밑바탕으로 해야 하는 과학기술교육에

서 조차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기술교육이 낙후되고 이와 더불어 산업기술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북한의 교육제도(그림 1), 남북한 대학교 및 대학생수 비교(표 1), 그리고 인구 만명당 남북한 대학생수(표 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한 대학교 및 대학생수 비교

대학교수(개교)/대학생수(천명)

연도	북한(A)	한국(B)	남북한 비율(B/A)
65	98/156	107/ 109	1.09/0.70
70	129/ ...	135/ 153	1.05/ ...
75	150/ ...	154/ 223	1.03/ ...
80	170/256	206/ 437	1.21/1.71
85	234/280	301/1.000	1.29/3.57
90	273/314	405/1.127	1.48/3.59

자료: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자료, (1991)에서 인용편집

〈표 2〉 인구1만명 기준 남북한 대학생수 비교

연도	북한(A)	한국(B)	남북한 비율(B/A)
65	127.3	38.0	0.30
70	...	47.5	...
75	...	63.2	...
80	140.9	114.6	0.81
85	140.0	245.1	1.75
90	144.6	262.9	1.62

자료: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자료, (1991)에서 인용